

수입산 소에 밀려난 한우 점유율 높이기

기간 단축 등 저비용 사육모델 개발로 한우가격 낮춘다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실시
불필요한 사육기간 연장 최소화
2024년까지 총 100억 내외 투입

정부가 소 사육기간과 방식을 점검해 새로운 사육모델 개발에 나서는데 이유는 생산비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우 소비자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환경 측면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한우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또 탄소중립 목표는 실현 가능할까.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은 올해부

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예산이 투입돼 진행된다. 농협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형질·사육기간·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해 실증시험을 실시한다.

실증시험 목표는 소 개체별 유전형질에 따라 적정 사육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사육기간 연장을 최소화해 출하월령을 기존 30개월 내외에서 최대 24~26개월령 내외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송아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투벨(1++) 등급이 가능하면 육질형으로 분류하고, 1등급 내외 출하가 가능한 개체는 육량형으로 분류해 출하시기와

사육방식을 조절하는 식이다.

소 성장률과 생산비용, 판매가격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사육조건과 성장단계별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소 단기사육 모델을 개발해 축산농가에 제시할 계획이다.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고도화,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 등 시장성 확대방안 등 병행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소 사육기간 단축은 사료비 감소로 이어지고, 한우 값을 내리는 요인이 된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 감소하면, 마리당 사료비가 약 1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 한마리당 1000만~1500만원 수준인 점

을 감안하면 사료비 감축으로 인한 비용은 최대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 절감 효과도 추가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한우 가격 예상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우 도매가는 수급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등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한우 공급과잉이 지속될 경우 한우 도매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소 사육기간이 6개월 줄면 온실가스도 7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체당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로인

해 축산농가 한우 사육이 늘면 탄소 배출 총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은 국제곡물가 불안정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세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고 우수한 국산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기 사육 모델을 조속히 개발해 현장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022년 시니어 취업연계 인공지능(AI) 데이터 가공 교육생 모집 (무료교육)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인공지능(AI) 데이터 가공 교육생 모집
교육내용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관련 이론 및 직무 교육 (교육비 무료) ▶제4차 산업혁명 및 정보통신기술(ICT)관련 기본교육
지원자격	▶ICT활용 기초역량을 갖추고 데이터 가공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55세 이상인 분 ▶성별/학력 무관, 데이터 입력, 가공,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하신 분 우대
특징	▶선정된 우수 교육생은 AI데이터 가공 사업 진행 시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 예정 ※본 교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에버영피플, ㈜에버영코리아 공동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에 대한 인공지능(AI)분야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며, 합격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워크넷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

모집인원 및 교육시간

모집분야	구분	교육조건
인공지능(AI) 데이터 가공 교육생 모집	모집인원	100명
	교육기간	2022. 7.12. ~ 8.30. (1.5개월)
	교육시간	▶인공지능(AI) 이론교육(30시간) : 대면/비대면교육 (1일 2시간) ▶인공지능 직무 실습교육(70시간) : 실무위주 실습교육(온라인교육)
	취업연계	소정의 이론교육 및 직무실습교육 수료 후 선발테스트를 거쳐 인공지능(AI) 데이터 가공 및 콘텐츠 DB구축 업무분야에 취업연계함

모집일정

모집분야	서류접수	서류전형발표	온라인 실기전형	비대면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교육 시작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교육생 모집	~7. 4. (월) 18:00까지	7. 5. (화)	7. 6. (수)	7. 7. (목) ~7. 8. (금)	7. 9. (토)	7.12. (화)

- 서류전형은 이력서작성, 컴퓨터 활용능력, 성실성, IT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예정
- 실기시험은 한글타자검증을 포함한 인터넷 정보검색 등 온라인 테스트 진행 예정(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지원서 접수 : 에버영피플 인재뱅크DB (<http://naver.me/GLueupFL>)에서 신청

문의처 :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 02-2636-2990, kwic1115@daum.net
에버영피플 : 02-2138-8381, recurit@everyoungpeople.com

고투입·고비용 생산구조 한우산업 ‘고질적 문제’

▶▶ 1면 ‘반격 나서는 한우’서 계속

고급화 전략에 사육일수·곡물소비 ↑ 과잉사육 기초 확산시 수급불안 우려

문제는 앞으로다. 짧게 보면 최근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가 도래했다. 국제 곡물값이 급격히 올랐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축산업계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도 거세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기호도 바뀌고 있다. 과거 지방(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소비 문화가 외국 생활 경험이 증가하며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구이를 해 먹는 소비문화로 바뀌고, 그런 변화는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처럼 소를 30개월 키워서 버틸 수 있는냐는 의문.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한우산업, 1990년 0.9조 → 5.7조로 약 6배 성장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산업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1990년 0.9조원에서 2020년 5.7조원으로 약 6배 성장했다. 정부의 한우산업 육성정책과 농가의 자구노력에 따른 적정규모화, 그로 인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도 이뤄졌다. 한우산업은 농림업 생산액의 11%,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한다. 단일 품목으로 보면 ‘미곡’(8.4조원), ‘돼지’(7.2조원)에 이어 3위로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우 사육마릿수는 1990년 162만마리에서 2021년 359만마리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한우 사육 농가수는 1990년 62만호에서 2021년 9만4000호로 약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전업화·규모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생산성도 높아졌다. 가족개량 강화로 지난 30년간 평균 출하체중은 1989

년 마리당 394kg에서 2019년 694kg으로 약 1.8배 상승했다. 등급제를 도입하며 1등급 이상 출현율(전체)은 1993년 10.7%에서 2021년 74.9%로 급등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추진했다.

소고기 소비량은 지난 30년간 30만톤에서 60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990년 국민소득 7000달러에서 2021년 3만5000달러로 소득 증가 영향이 컸다. 실제로 국민소득 1만달러대에 소고기 소비 30만톤에 진입했고 2만달러대는 40만~50만톤, 3만달러대에 60만톤에 진입했다.

◆고투입·고비용 생산구조에 탄소중립 요구도 거세

한우를 비롯한 전체 소고기 산업 규모는 커졌으나 고급화 전략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육일수가 증가하고 곡물소비도 늘면서 고투입·고비용의 생산구조가 우리 한우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곡물을 먹여 키우는 비육우 사육일수는 2000년 495일(약 17개월)에서 2010년 658일(약 22개월), 2020년 729일(약 24개월)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송아지 기간(약 6개월)을 더 할 경우 사육일수는 2020년 기준 30개월이다. 비육우용 배합사료 가격은 같은기간 kg당 211원에서 370원, 412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463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며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했고 1kg당 5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한우 공급과잉도 문제다. 한우 도매가가 높아지며 소를 사육하려는 축산농가가 증가해서다. 실제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5년 1kg당 1만6284원에서 2021년 2만1169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사육마릿수는 277만마리에서 342만마리로 늘었다. 한우 정액 판매량도 지난해 237.4만str로 평년(203.5만str) 대비 16.7%나 높은 상태다.

/세종=한용수 기자